

# 탁월한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인류의 미래상

프리먼 다이슨의 《상상의 세계》를 읽고

듀나 | SF 작가

훌륭한 물리학자이면서 뛰어난 몽상가인 다이슨은 《상상의 세계》에서 예의 '큰 꿈 꾸는 버릇'을 보여준다. 물론, 다이슨의 미래예측이 치밀한 것도 아니고, 근미래의 테크놀로지를 실감나게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현숙한 시선과 미래를 내다보는 짧은 열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먼 다이슨은 몽상가이자 로맨티시스트다. 궤도에 스페이스 셔틀이나 간신히 쏘아 올리는 현실 세계는 그의 스케일에 맞지 않는다. 그는 훨씬 큰 꿈을 꾸다. 그가 꾸는 꿈속에서 사람들은 목성과 토성을 분해해서 태양계를 덮는 구를 만든다. 어처구니없다고? SETI가 한참 유행일 때, 과학자들은 정말로 외계인들이 만든 다이슨 구를 찾기 위해 그런 구가 널 만한 10미크론의 적외선 방사를 찾아 헤맸다. 적어도 그는 훌륭한 물리학자이기도 한 몽상가여서, 그가 꾸는 꿈들은 과학적 근거가 확실했다.

##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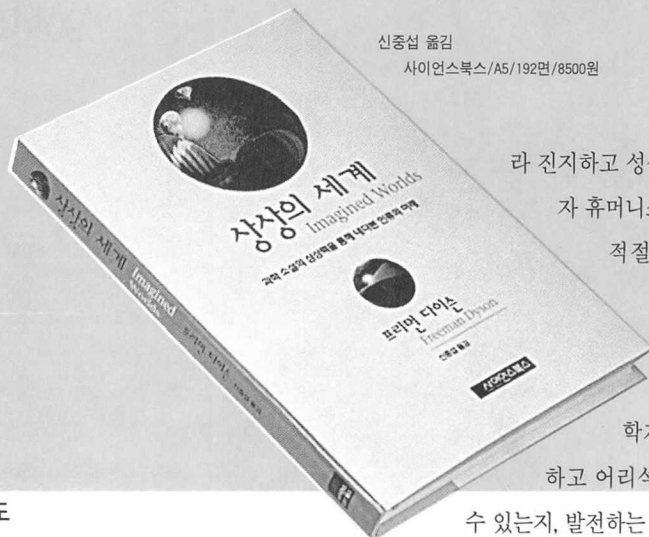
95년 예루살렘 히브루 대학에서 한 강연들을 엮은 《상상의 세계》(신중섭 옮김, 사이언스북스) 역시 다이슨의 '큰 꿈을 꾸는' 버릇을 보여준다. 전반부에서 현대 전문가들의 '장기 비전 결여'를 나무라는 것부터 심상치 않더니, 책의 후반부에 가서는 그가 가진 미래의 비전을 십년·백년·천년·만년·백만년 단위로 확장해 제시한다. 그의 미래는 라디오 텔레파시와 유전자 변형된 인간, 은하계 전체로 뻗어가는 인류로 가득 찬 SF적인 세계다.

그러나 《상상의 세계》의 미래학적인 논리나 SF적 상상력은 안전한 편이고 특별히 새로운 비

전도 없다(다이슨 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SF 독자들은 꽤 실망할 것이다). 우주 진출 이야기야 에딩턴 경과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SF 장르가 고정되기도 전에 끝도 없이 해낸 얘기고, 시간의 단위를 확장해가며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해 사색하는 방식 역시 올라프 스테이플던이 《최초, 최후의 인간》과 《스타 메이커》에서 이미 써먹은 것을 정중하게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 에딩턴과 스테이플던의 비전은, 독창성으로 보나 장대함으로 보나, 모두 조심스러운 후배의 것을 훨씬 능가한다. 그렇다고 다이슨이 토폴러와 같은 본격적인 미래학자들처럼 치밀한 예측을 해내는 것도 아니며, 아서 C. 클라크처럼 근미래의 테크놀로지를 실감나게 예언하는 것도 아니다.

《상상의 세계》의 미래학적 비전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짝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조심스러운 구애에 가깝다. 다이슨은 기존의 저서들에서 아이디어를 꺼내 조합하고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다이슨의 장기 비전은 일종의 의무전으로, 장기 비전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화려한 내용을 암시하는 제목과는 달리, 《상상의 세계》는 다이슨이 신중하게 기존의 과학과 기술을 점검하고 비판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 이 책을 쓴 다이슨은 다이슨 구의 발명가가 아니



신중섭 옮김  
사이언스북스/A5/192면/8500원

라 진지하고 성실한 과학 비평가이자 휴머니스트다.

적절하게 사용된 실례들을 통해 다이슨은 이데올로기가 주도한 과학기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정체돼 있는 사회정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경제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닌 그로서는 경제적 분배와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전문가 '지식인'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 뛰어 들었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 '작은 과학'의 장점 예찬해

이 책에서 가장 생산적인 장은 그가 '나폴레옹적인 과학'과 '톨스토이적인 과학'이라고 부르는 두 과학적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다. 그는 엄격한 규율과 훈련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나폴레옹적 과학과 자유와 무정부주의가 주도하는 소규모의 토폴러의 과학의 장단점을 설명하는데, 이데올로기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작은 과학'의 장점을 예찬하는 그의 입장을 보면, 그가 어디에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는지 자명해진다.

다이슨의 입장이 무엇이건, 독자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건 동조하지 않건, 《상상의 세계》는 흥미로운 책이다. 인용된 예들은 흥미진진하며 이들을 이야기하는 다이슨의 달변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에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 조용히 사색하는 '노인의 지혜'와 수천수백만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젊은이의 열기'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마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책 자체의 조심스럽고 신중한 내용보다는 바로 그 태도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